

5월의 기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1. 조용기 총재 목사님께서 DCEM을 통한 해외 선교사역 사명을 너
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용기
목사님의 건강을 살피 주시옵소서.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님을 본받아 우리도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3.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
나님이 주시는 은혜임을 알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4.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발하여 주변을 환히 밝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5.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6.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
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
교회(최용우 목사)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예림, 오주봉,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
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발
견을 못해서 그렇지, 발견하면 그 보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
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바로 성령께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꿈을, 늙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십니다. 여
러분이 그 꿈과 환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
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강제로 부모에게 떠밀려서 유학을 가
서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대학 3년까지 죽을 애를 쓰고 공부해도
너무나 하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나중
에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왔다가
우리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도 심란하고 그러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러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따뜻
한 품에 안아주는 것 같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경제학이 공부하
기 싫은데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나이는 먹어가지요. 시집도 안
가지요. 나는 절단강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울
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꿈을 주셔요. 성령께서 그 자
매님에게 미술가가 되라는 꿈을 주셨던 것입니다. "미술가요?
오늘 처음 듣는 말인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 미술
가가 될 소질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숨겨 놓으니 그
렇게 삶이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나 미술 할래요." 그랬더니 부모
님이 화가 나서 집에서 나가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자
매님이 그 길로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부모님한테는
경제학을 공부한다고 해 놓고 미술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므로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참으로 기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
니다. 힘들 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열심히
개발하고 나가니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
하리라"(요한복음 16: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품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
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
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
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
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
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
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pril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되돌아보는 해외 성회 하이라이트

2004년 4월 조용기 목사 초청 솔로몬군도 성회



지난 2004년 4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솔로몬군도 성회가 DCEM 주관 아래
개최되었다. 솔로몬군도는 태평양 남서부의
독립국으로 1400km에 걸쳐 922개의 흩어진
섬으로 이뤄져 있다.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95%에 달하지만, 뜨거운 성령 체험이 없었던
솔로몬군도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의 성회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게 됐다.

솔로몬군도의 수도 호니아라에 위치한 라
손타마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성회는 이틀 동
안 연인원 7만 여 명이 참석하고 3천 여 명이
결신했다. 성회가 열린 당시 솔로몬군도는 우

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회 하루 전까
지 한달 간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졌다. 성
회 장소가 야외경기장이다 보니 많은 성도들
의 근심이 있었지만, 성회가 열린 기간 동안
거짓말처럼 화창한 날씨가 계속 되어 그 시작
부터 은혜로운 성회였다.

조용기 목사는 멜라네시아인과 폴리네시아
인 간의 종족갈등으로 군사쿠데타가 일어나
는 등 갈등 속에 있던 솔로몬군도 성도들에게
용서와 화해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
은 간단하고도 명료한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

에 아멘으로 화답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을
표현했다.

지난 솔로몬군도 대성회는 솔로몬 사상 처
음으로 구신교가 연합해 개최되어 더욱 의미
가 컸다. 또한 조용기 목사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성도가 물릴 것을 예상해 경찰들이 자발
적으로 치안 유지에 나서기도 해 감사한 성회
였다.

성회를 계기로 솔로몬군도의 성도들의 마
음 속에 심어진 성령의 불씨가 계속 해서 뜨
겁게 타오르고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1~2절)

말미암아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꿈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나아가라

셋째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되고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갑자기 마음속에 불신앙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과 함께 평안이 마음을 점령하고 '이제는 되었다.'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없는데 내 마음속에는 있는 것처럼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믿어지고 이미 받은 것처럼 확실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고 그 변화된 바탕 위에서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믿음을 확 주시는 것입니다.

4. 믿음을 입술의 말로 시인하라

일단 믿음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이것을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믿음을 굳세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서 부인해 버리면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 18:21)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믿음을 굳세게 입술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찬미하고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또 시인하십시오. 주무실 때 시인하고 깨어나서 시인하고 일어나서 일할 때 시인하고 앉으나 서나 입술로서 하나님 말씀을 굳세게 부여잡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5. 용서하고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마음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미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깨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리ki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거나 부모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웃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원한은 쓴 물을 내는 것입니다. 이 쓴 물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버리고 믿음의 역사를 말라 죽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항상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3-44)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 주시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아득하고 땅을 바라보아도 막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4차원의 영성을 적용하십시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생각에 뿌려져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도록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꿈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함으로 믿음이 생기면 입술로 시인함으로써 믿음을 지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 생각을 변화시키라

첫째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변화되면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놓여 남을 받고 영생, 천국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져야 믿음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런 믿음의 기초에 서서 이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묵상해야 합니다.

2. 꿈을 품고 기도하라

둘째로, 이 세상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이룬 줄 믿고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설계자가 집을 지을 때 완성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는 꿈을 그려볼 줄 알아야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마음에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꿈이 없이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먼저 마음속에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분명히 그려 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뚜렷하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일본 선교의 꿈 가진 분을 찾습니다”

삿포르바이블컬리지 신학생 모집

일본 삿포르바이블컬리지가 2022년 개교를 앞두고 신학생을 모집한다. 삿포르바이블컬리지는 DCEM 사무총장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가 시무하는 순복음동경교회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립한 신학교로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가 직접 이사장을 맡아 운영 된다.

또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가 명예학교장을,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 목사가 학교장을 맡아 운영하기로 해 양질의 신학 교육이 기대되고 있다.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르성전 병설 신학교인 삿포르바이블컬리지는 입학생들에게 파

격적인 장학제도를 실시하기로 발표해 신학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입학생들은 일본 삿포르에서 2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신학과 일본어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순복음의 영성을 갖춘 인재로 거듭난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년동안 신학과 일본어 공부를 위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졸업생들에게는 약 1년간 순복음동경교회 인턴십을 통해 선교와 교회 섬김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인턴십 후 일본 현지 교회에 개회하면 순복음동경교회로부터 1년간 지원을 받게 된다.

조용기 목사는 “삿포르바이블컬리지가 4차원의 영성과 오증복음의 능력으로 일본일천만구원을 위한 중심에 서길 바란다”며 축하했다.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본 선교의 길을 연다는 강한 의지로 삿포르바이블컬리지를 개교하게 됐다. 일본 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일본 선교에 비전을 가진 많은 신학생들이 삿포르바이블컬리지에서 세계선교에 이바지할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저는 순복음을 전함으로 세계 최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삿포르에도 세계적인 신학교가 설립되고 순복음의 역사가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명예교장장 _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조용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사처럼 기꺼이 주의 백성을 위하여 원신함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본의 입어버린 영혼을 위해 나아갈 준비된 인재를 길러내는 SAPPORO BIBLE COLLEGE가 되었습니다.

학교장 _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영훈

삿포르신학교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본선교의 길을 만들어 낸다는 비전이 담겨있습니다. 일본 국내 외 예비선교사들에게 철저한 신학 교육과 일본어를 가르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바로 진취적인 선교사로 주께 쓰임받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사장 _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 시가키 시게마사

SAPPORO BIBLE COLLEGE

2022년도 삿포르신학교 학생모집

일본선교의 최전선에서 헌신할 선교사비전을 가진 신학생을 모집합니다. 졸업후에는 각자의 적성과 진로희망에 따라 일본 선교를 이끌 지도자, 교회개혁자로 활약할 길이 제공됩니다. 일본선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원자격
일본 선교를 향한 강한 의욕과 선교사 소명을 받은 자
한국 교육부 인가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연령과 성별 제한 없음

제출서류
입학원서,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대학졸업(예정)증명서(영문), 성적증명서(영문),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화상면접

학교소개
<https://sapporobible.college.kr>

접수기간
2021.8.16(월)~8.31(화)

입학전형비 및 수업료 (기숙, 식사 일체 포함)	수업료
5만원	180만원 /년

*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선발·추천하여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 일본어를 전혀 몰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입학문의: SAPPORO BIBLE COLLEGE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02-6181-6572(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국)

SAPPORO BIBLE COLLEGE
17Chome-3-11, Minami8Jonishi, Chuo-ku, Sapporo, Hokkaido, Japan